

2017 JUNE

CANKS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발행일: 2017.06.20



제 9 회 중앙아시아 성균한글백일장

2017년 4월 22일 제 9회 중앙아시아 성균한글백일장이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경시대회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4개국 11개 도시 24개 대학에서 36명의 대학생이 참가하여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관련기사 p.8)

비슈케크 인문대
(관련기사 pp.2-3)

한국-키르기스스탄 국제학술대회, 제 1 회 세계언어 문화축제, 고려인 이주 80주년 국제학술대회, 제 14 회 한국학퀴즈대회

키르기스-한국대학
(관련기사 p.4)

2017 키르기스스탄 교육 박람회, 한국외대 유학설명회, 제주대/제주한라대 유학설명회

카자흐 국립대
(관련기사 pp.5-6)

2017 카자흐스탄 동양학 올림피아드, 대학생학술대회, 2017 한국학주간, 한국학특강, 의료특강, KF 한국전공대학원생펠로십

카자흐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관련기사 pp.7-8)

전승민 주알마티 총영사 초청강연, 한-카 수교 25주년 공공외교세미나, GTE 아카데미, 제 7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

* 이 뉴스레터는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canks.asia>)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중앙아시아 인명 지명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Center for Korean Studies,
KazUIR&WL
Tole bi 84, Almaty, Kazakhstan
Homepage: <http://canks.asia>
E-mail: cks@ablaikhan.kz

비슈케크 인문대

한국-키르기스스탄 국제학술대회

2017년 5월 12일(금)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비슈케크 인문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키르기스스탄 국제학술대회가 비슈케크 인문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본 학술대회의 주제는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의 상호이해”로 고대사에서 경제에 이르는 두 나라의 다양한 관심 분야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오전에 진행된 개회식에는 무사예프 총장(비슈케크 인문대)의 개회사, 신종원 부원장(한국학중앙연구원)의 환영사, 정병후 대사(주키르기스스탄 대사관)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 한국학중앙연구원-비슈케크 인문대학교 자매결연 체결식이 진행되었다.

오전 세션은 “현대 키르기스스탄과 한국”을 주제로 ‘한국 발전 모델의 교훈과 키르기스스탄’(마시라포프), ‘한국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 고도성장의 견인차에서 행복사회의 에너지로’(구난희)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백태현 교수(비슈케크 인문대)의 사회로 진행된 오후 발표는 3세션으로 나누어 진행이 되었다. 제1세션은 고대사를 주제로 ‘중앙아시아의 고대 언어학 - 스키프족, 고대 터키’(리스쿨로프), ‘산신과 호랑이 - 단군신화의 한 일면’(신종원)의 발표가 있었다. 제2세션은 역사연구를 주제로 ‘중앙아시아 역사 연구에 있어 다관점 방법 적용의 장점과 단점’(베갈리에프), ‘신라 장식토우의 정치적 의미 재고’(우정연)의 발표가 있었다. 제3세션은 사회경제발전을 주제로 ‘한국 발전 경험을 통한 키르기스스탄의 발전 모델 모색’(두센비에프), ‘한국개발모형과 키르기스 농촌의 빈곤 극복’(한도현)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제1회 세계언어문화축제

2017년 4월 21일(금) - 22일(토) 제1회 세계언어문화축제가 비슈케크 인문대에서 열렸다. 키르기스스탄의 모든 대학들이 참여하였고, 무사예프 총장(비슈케크 인문대)의 개회사에 이어 키르기스스탄 교육부장관이 축사를 하였다. 식전행사로 일곱 명이 세계의 일치를 의미하는 마임공연을 하였는데, 공연 마지막에 각국 의상을 입은 여학생들이 지구본을 같이 들고 퇴장하여 이번 행사의 의미를 나타내었다.

21일에는 언어별로 백일장과 무용, 노래, 쿡트 경연이 있었고, 22일에는 언어와 문화의 세계라는 예술을 평가하는 쿡쿠르가 실시되었다. 일본은 ‘은혜를 갚은 거북’으로 창조출연하고, 키르기스-러시아 슬라브대는 ‘돼지 삼형제’, 키르기스-한국대학은 ‘나비잠’, 아라바예프대는 ‘춘향전’, 비슈케크 인문대는 ‘화랑’으로 경연에 참가하였다.

한국어학 부문에서는 백일장과 연극 경연 결과 아라바예프대가 1등, 키르기스-한국대학과 비슈케크 인문대가 공동 2등을 차지하였다. 본고 3층 강당에서 진행된 강연에 참석한 교직원과 학생들에게는 향후 양국의 발전적인 미래 전망을 가늠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정병후 대사의 본고 방문에는 새로 부임한 민재식 비슈케크 한국교육원장도 동행하였다.



비슈케크 인문대

고려인 이주 80 주년 국제학술대회

2017년 5월 19일(금) 비슈케크 인문대 대강당에서 중앙아시아 고려인 이주 8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본 대회는 비슈케크 인문대와 한국음식인문학연구원이 주최하고 주키르기스스탄 대사관과 키르기스스탄 고려인협회가 후원하였다. 본 대회의 주제는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민족음식과 김치”로서 중앙아시아 거주 고려인의 민족음식이 갖는 문화적 특징과 그 의미를 재조명해 보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백태현 교수(비슈케크 인문대)와 세리쿨로바 교수(키르기스-한국대학)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무사예프 총장(비슈케크 인문대)의 개회사와 정병후 대사(주키르기스스탄 대사관)의 축사, 최 발레리 회장(키르기스스탄 고려인협회)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의 “한민족사에서 고려인의 의미와 민족음식문화”라는 기조 발표가 있었다.

학술대회에 앞서 진행된 “김치담그기 퍼포먼스”는 참석한 많은 학생들과 청중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시연을 위해 특별히 한국에서 이하연 김치명인이 참석하였다. 시연이 끝난 후 현장에서 청중들이 직접 먹어 볼 기회를 가졌는데, 10kg에 달하는 김치가 순식간에 없어졌다. 축하공연으로 펼쳐진 키르기스-한국대학의 사물놀이 공연, 태권도팀 시연은 현장의 열기를 더욱 달구었다.

제 1 세션은 “고려인 민족음식문화의 특징”을 주제로 ‘중앙아시아 고려인 음식문화의 특성: 세대별 전승형태’,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의 고려인 레스토랑’,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일상 및 명절 음식’,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떡’ 등이 발표되었다. 제 2 세션은 “김치와 김치의 문화 그리고 산업”을 주제로 ‘고려인의 김치와 김치의 문화’, ‘중앙아시아 김치산업화 가능성 및 방향’, ‘키르기스스탄 농업 현황과 발전 방안 모색 - 백색혁명을 중심으로’의 발표가 있었다.



제 14 회 대학생 한국학퀴즈대회

2017년 5월 13일(토) 비슈케크 인문대 키노잘에서 제 14회 키르기스스탄 대학생 한국학퀴즈대회가 열렸다. 본 대회는 키르기스스탄 한국어(학)교수협의회와 비슈케쿠 한국교육원이 주최하고, 비슈케크 인문대 한국학과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가 주관하였으며, 대한민국 교육부가 후원하였다.

참가자들은 한국인들이 풀기에도 어려운 문제들에도 척척 답을 쓸 정도로 열심히 준비했다. 이는 키르기스스탄 한국학 교원들의 열정과 학생들의 열의가 합쳐져서 이룩된 성과라고 평가할 수가 있다.

이 대회에는 비슈케크 인문대, 키르기스 국립대, 아라바예프대, 언어문화대, 키르기스 법률대, 오슈 공대, 키르기스-한국대학, 키르기스-러시아 슬라브대, 키르기스 체육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등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키르기스-한국대학

2017 키르기스스탄 교육박람회

2017년 4월 29일(토) 키르기스스탄 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로자 오톨바예바 재단’이 주최하는 제 5회 키르기스스탄 교육박람회가 키르기스스탄 문화부 앞 광장에서 열렸다. 교육문제 개선 및 발전을 위해 2013년부터 개최된 본 박람회는 올해로 5회째에 이르며, 매년 유치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교육기관과 기타 교육관련 업체들이 참가하여 각 기관을 홍보하고 다양한 교육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박람회에는 매년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그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2013년 제 1회 교육박람회부터 계속 참가하고 있는 키르기스-한국대학(KKC)은 올해도 한국문화를 키르기스스탄에 알리는 건인자 역할을 하였다. 특히 교육박람회 행사장에 마련된 중앙 무대에서 펼쳐진 키르기스-한국대학 사물놀이 공연은 키르기스스탄 국영방송의 뉴스에 소개될 정도로 많은 관중의 환호를 받았다.



한국외대 유학설명회

2017년 4월 20일(목) 한국외대 유학설명회가 키르기스-한국대학 주관으로 예브로파호텔에서 비슈케크 소재 많은 대학생과 쉬콜라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본 유학설명회를 위해 한국외대에서 오종진 국제교류처장, 박성진 사업지원처 팀장, 김순기 어학연구소 부장이 참석하였다. 유학설명회는 오종진 처장의 환영사와 민재식 비슈케크 한국교육원장의 축사에 이어 한국외대의 다양한 유학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한국외대의 특화된 한국어연수프로그램과 2+2의 공동학위 프로그램(한국외대와 뉴욕주립대 공동)은 참석한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유학설명회가 끝난 후 진행된 개별 학생들을 위한 상담 시간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는데, 역시 키르기스스탄 학생들의 한국 유학에 대한 열의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주대, 제주한라대 유학설명회

2015년에 이어 2017년 2월 11일 제주대와 제주한라대의 키르기스스탄 유학설명회가 키르기스-한국대학 주관으로 예브로파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본 유학설명회에는 많은 대학생들과 쉬콜라 학생들이 참석하여, 키르기스스탄에도 한국 유학에 대한 열의와 한류열풍이 강하게 일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본 행사를 위해 한국에서 문성종 교수(제주한라대), 김계현 교수(제주대), 오고운 교수(제주대), 박명준 유학담당관(제주한라대)이 참석하여, 두 대학의 다양한 유학프로그램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비슈케크 유학설명회에 앞서 2월 9일(목) 오슈에서도 유학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오슈 세종학당 주관으로 2학기 개강일에 맞추어 오슈 공대 강당에서 진행된 유학박람회에도 많은 대학생과 쉬콜라 학생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카자흐 국립대

2017 카자흐스탄 동양학올림피아드

2017년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카자흐 국립대 동방학부에서 카자흐스탄 동양학올림피아드가 개최되었다. 본 행사 참가자들은 그 동안 쌓아 온 역사와 언어의 한국학 분야 지식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입상자들에게는 푸짐한 상금과 상품이 지급되었다. 한국학올림피아드는 명실공히 카자흐스탄 최고의 지식겨룸의 장이며, 한국학도에게는 한국학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제고시켜주는 최고의 축제로 자리매김되어 가고 있다.



2017 한국학주간

2017년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에서 “한국학주간” 행사가 진행되었다. 본 행사는 정기적인 연례행사로 “한국의 문화/역사 퀴즈대회”, “한국영화의 날”, “한국음식문화 체험의 날” 등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고, 마지막 날에는 “대사와의 만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승민 주알마티 한국총영사와의 만남을 갖는 것으로 한 주일 동안의 한국학주간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대학생학술대회

2017년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카자흐 국립대에서 대학생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본 대회에 동방학부 한국학과 학생들 및 외국인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서로 간의 우정과 화합, 지식 교류의 시간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중앙아시아 성균한글백일장 수상

2017년 4월 22일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에서 개최된 제8회 중앙아시아 성균한글백일장에서 카자흐국립대 한국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울란 로자가 동상을 수상했다. 울란 로자는 졸업 후 성균관대 석사과정 장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특강

2017년 4월 24일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에서 강릉원주대 김영식 교수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동북아시아의 정치와 경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특강에서 학생들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치와 경제 상황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기회를 가졌다.

의료특강

2017년 4월 26일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에서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의료재단 청연과 함께하는 뜻깊은 의료특강행사가 개최되었다. 특강은 지난 해와 조금 달리, 동방의학 용어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은 의학분야에 대한 새로운 표현을 접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만남을 통해 의료재단 청연의 카자흐스탄 진출 시 상호 인력지원과 협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KF 한국전공대학원생펠로십

2017년 1월 11일 주알마티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전공대학원생펠로십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본 행사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대학원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 대학원생 5명(석사 4명, 박사 1명)과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과 대학원생 4명(석사 3명, 박사 1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장학사업의 취지는 우수한 한국학 인재들을 대학원 과정에 적극 유치하고, 궁극적으로는 카자흐스탄 내 한국학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해 나가자는 데에 있다. 이러한 지원은 대학 일선에서 대학원 진학업무를 수행하고 우수 인재들을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좋은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비록 외부 지원이고 투자이기는 하나 우수한 한국학 인재를 양산하여 향후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협력과 우호 증진에 기여할 인재를 키운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전승민 주알마티 총영사 초청강연

2017년 4월 7일(금)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중앙학부 대강의실에서 전승민 총영사(주알마티 총영사관) 초청강연이 개최되었다.

전승민 총영사는 “세계로 미래로 – 외교관으로서의 삶”을 주제로 주재했던 나라들의 경제, 문화, 생활과 주재 중에 활동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30여 년의 외교관 경험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약 150명의 한국학과 교원과 학생들이 참석한 이번 강연은 청중들의 큰 호응 속에 진행되었다.



한-카 수교 25주년 공공외교세미나

2017년 5월 5일(금)부터 6일(토)까지 2일간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이 주최한 “2017 한국-카자흐스탄 공공외교세미나”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공공외교세미나는 한-카 수교 25주년 및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맞아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어 및 한국학을 강의하는 교원, 대학원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 정책 및 주요 외교 사안의 홍보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상호 이미지 제고가 가능한 이슈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알마티, 아스타나, 우스티카메노고르스크, 크질오르다, 탈디쿠르간, 타라즈, 침켄트, 악토베 등 8개 도시 20개 대학 및 기관의 교원 50명, 대학원생 및 대학생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GTE 아카데미

2017년 1월 16일(월)부터 2월 10일(금)까지 4주 동안 부산외대 러시아중앙아시아학부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가 공동으로 GTE(Global Triangle Education) 아카데미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 교육부가 지원하는 CORE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부산외대-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현지기업 3자 간에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강상엽 관장(KOTRA 알마티무역관), 이교종 차장(신한은행 카자흐스탄법인)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관계자들이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해 한국-카자흐스탄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현지의 기업실무요령, 카자흐스탄의 기업 환경 등 경제와 관련한 특강을 맡아 주었다. 또한 한국학 교원들이 정치, 사회, 역사, 문화, 언어 분야의 특강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역학으로서의 카자흐스탄의 특수성을 소개하였다. 학생들은 또한 엑스포 준비상황을 견학하기 위해 아스타나를 방문하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현황을 체험하기 위해 LG 전자(법인장 전영재) 공장과 Autogas Almaty(대표 김상수)를 방문하는 등 다양한 견학프로그램을 통해 현장학습의 성과를 높일 수 있었다.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제 7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

2017년 2월 24일(금)부터 25일(토)까지 이틀에 걸쳐 제 7회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본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경시대회에는 어문학, 통번역, 한국어의 3개 부문에 알마티, 아스타나, 악토베, 탈디쿠르간, 크질오르다, 우스티카메노고르스크, 타라즈, 비슈케크, 타슈켄트, 노보시비르스크 등 4개국 10개 도시 20개 대학에서 67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루었다.

어문학, 통번역, 한국어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 경시결과 1위 3명에게는 유니돔에서 후원한 스마트폰이, 2위 3명에게는 카자흐스탄 중기연에서 후원한 상금 70,000 텡게씩, 3위 4명에게는 한국학센터에서 후원한 상금 50,000 텡게씩이 주어졌다. 장려상 8명에게는 상금 15,000 텡게씩을 법무법인 CIS Group에서 후원하였다. 특히 한국어 부문의 1위 주누소바 바얀(유라시아 국립대)과 2위 테메르타소바 아이굴(탈디쿠르간 세종학당)은 전북대 대학원에 진학하는 특전이 주어진다. 또한 한국어부문의 특별상 이스폴로프 알마스(카자흐 국립대 4학년)은 이화여대 언어교육원에서 후원한 단기연수의 특전이 주어진다.

7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는 공동개최한 전북대에서 대학원 진학을 포함하여 다양한 상품을 마련하였고,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알마티 총영사관, 알마티 한국교육원, 이화여대 언어교육원, 법무법인 CIS Group, 유니돔, 카자흐스탄 중기연 등 국내외 다양한 기관들의 후원으로 여러 도시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었다. 한국학센터(소장 박 벨리)는 입상에 실패한 참가자들을 위해 기념품과 참가증명서를 준비했으며, 내년에도 한국의 대학원 진학이나 단기연수 등 상품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제 9 회 중앙아시아 성균한글백일장

2017년 4월 22일(토) 제 9회 중앙아시아 성균한글백일장이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4개국 11개 도시 24개 대학에서 36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진정한 행복’을 주제로 진행된 백일장 결과, 1등은 미르조알리에프 후시누트(타지크 국립상업대), 2등은 이자트 아이다(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3등은 울란로자(카자흐 국립대)가 차지했다. 이들 수상자에게는 2년 동안 성균관대 대학원 등록금이 전액 면제되는 등 특전이 주어진다.

중앙아시아 성균한글백일장은 2009년 제 1회 대회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개최되었으며, 이후 제 2회 대회부터 제 7회 대회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개최되었다. 제 8회 대회부터 다시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장소를 옮겨 대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중앙아시아 최대의 한국어경시대회로 자리잡았다.

